동호인들의 종목으로만 여겨졌던 3대3 농구가 2020도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이 됐다. 대한농구협회 차원의 대비가 절실해졌다. 스포츠동아DB

양궁 웃고 사격 울고… 한국, 올림픽 메달밭 희비교차

33개 종목 339개 금메달 걸린 도쿄올림픽

야구-소프트볼·가라테·스케이트보드 등 5종목 추가
육상·수영·유도 등 혼성종목 추가 개최국 일본 유리
한국도 양궁 5개 金 기대…사격 50m 폐지는 아쉬움

2020도쿄올림픽 종목이 최종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0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3년 뒤 열릴 도쿄올림픽의 정식종목 및 세부종목 조정을 단행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28개 정식종목 외에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추천한 야구·소프트볼, 가라테,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 등 5개 종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세부종목을 조정했다. 이로써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었던 리우대회와 달리 도쿄대회는 33개 종목에서 339개의 금메달을 놓고 주인을 가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올림픽 효자종목으로 불렸던 일부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양궁은 웃었다. 지난해 리우올림픽 당시 태극궁사들은 남녀부 개인전 및 단체전 시상대 꼭대기에 서며 전통의 효자종목 위상을 굳게 지켰다. 여기에 혼성종목이 추가돼 향후 한국양궁은 최대 5개의 금메달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개인으로는 대회 2관왕을 넘어 최대 3관왕까지 겨냥할 수 있다.

이미 리우올림픽 직후부터 조짐이 있었다. 지난해 충남 일대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만난 복수의 양궁인들은 "한때 폐쇄적인 종목으로 비쳐졌던 국제양궁이 최근 기존의 방식을 바꿔 육성 응원을 허용하는 등 관중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오히려 재미에 비해 지나치게 메달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완 차원에서 혼성종목이 추가될 것 같다. 당장 도쿄올림픽부터 양궁 세부종목으로 혼성종목이 탄생할 것 같다"고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는데, 현실이 됐다. IOC는 여자선수들의 참여율을 남자선수들에게 최대한 맞추기 위해 혼성종목을 대거 추가했고, 여기에 양궁이 포함됐다.

반면 사격은 울었다. 세계적 '사격황제' 진종오(38·kt)가 2008년 베이징대회부터 2012년 런던대회를 거쳐 리우대회까지 올림픽 3연패에 성공한 50m 권총을 비롯해 50m 소총복사, 더블트랩 등 남자 3개 종목이 폐지됐다. 그 대신 10m 공기권총, 10m 공기소총, 트랩 등 3개 혼성종목이 신설된다. 50m 권총은 물론 최근 소총복사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한국사격 입장에선 크게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여기에 육상과 수영에서 혼성계주, 혼성계영이 도쿄올림픽부터 추가된다. 유도 역시 혼성종목이 열린다. 기초종목에 약한 우리로선 썩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특히 한국육상은 아직까지도 국제적 인재를 키우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올림픽 출전 기준기록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도쿄올림픽에 대한 전망은 한층 어두운 형편이다. 예나 지금이나 박태환(28·인천시청)에게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수영도 혼성종목까지 추가돼 스포츠강국들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이 탄탄한 데다, 유도 또한 한동안의 부진을 딛고 리우올림픽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터라 자칫 일본과의 자존심 경쟁에서도 크게 밀릴 것으로 우려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금메달 걸린 3대3 농구 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올림픽 정식종목 승격…협회 차원 준비 절실

남녀 3대3 농구가 2020도쿄올림픽 정식종목이 됐다. 국제농구연맹(FIBA)이 지난 5~6년간 심혈을 기울여 육성했던 3대3 농구가 올림픽 입성을 통해 결실을 이루게 됐다. FIBA는 11일(한국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FIBA는 이달 17일부터 3대3 농구 월드컵을 프랑스 낭트에서 개최한다.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3번째 대회다.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일찌감치 관심을 보이며 참가해왔다. 한국은 올해 처음 출전한다. 남자프로농구 은퇴선수들이 모여 만들어진 팀이 예선을 통과해 프랑스로 떠나게 됐다. 귀화혼혈선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승준 등이 한국 3대3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림픽 정식종목이 됐지만 국내에서 3대3 농구는 동호인들이 즐기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3대3 대표팀의 경우 일본에서 농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재일동포가 KBL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일본 대회에 참가해오다가 올해 국내서 3대3 월드컵 예선전이 열려 출전했고, 한국대표 자격을 얻었다.

3대3 농구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승격됨에 따라 대한농구협회 차원의 준비가 절실해졌다. 카타르는 제2회 3대3 농구 월드컵 남자부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국가도 이 종목에선 국제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러시아, 세르비아 등의 농구강국들도 3대3 농구 월드컵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농구의 현실을 고려하면 실업팀 또는 프로팀을 조직하기가 어렵다. 대학 등 아마추어팀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3대3 농구팀을 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골프 올림픽 금메달 2번 더 가능하다

지난 리우올림픽서 112년 만에 정식종목 부활
2024년까지 잔류 확정…한국여자골프 기대감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부활했던 골프가 2024년까지 생존하게 됐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골프에서 박인비가 금메달을 확정하는 퍼트를 끝낸 뒤 두 팔을 벌린 채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대회를 통해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복귀한 골프가 2024년까지 잔류를 확정했다. 골프위크 등 미국 매체들은 11일(한국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가 골프를 2024년 대회까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골프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 이후 112년 만인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등에서 활약 중인 제이슨 데이(호주), 더스틴 존슨,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남자골프 세계 톱랭커들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출전을 포기하는 바람에 시작하기도 전에 맥이 빠졌다. 이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로는 잔류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까지 흘러나왔다. 그나마 리우올림픽 이후 기대감이 높아졌다. 남자골프에선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등이 기대이상의 활약을 펼쳤고, 여자골프에선 박인비(한국)와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명승부를 펼치며 흥행을 이끌었다.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경합 중이다. 개최지는 9월 페루에서 개최될 IOC 총회에서 결정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나눔 Lotto 6/45 758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7년 6월 10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5	9	12	30	39	43	24

1등 총 당첨금 16,631,759,632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8	2,078,969,954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63	43,999,36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170	1,277,401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06,121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680,080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 - 0112 www.ngcc.go.kr

'나쁜 사람'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임명 14일 도종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되는 등 전 정권에서 시련을 겪었던 노태강 전 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체부 장관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달 6일 나종민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제1차관으로 임명했다. 도 장관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노 신임 차관은 체육국장이던 2013년 당시 대한승마협회 감사보고서에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아 박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찍혀 인사조치를 당한 뒤 결국 문체부를 떠났다가 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2차관으로 복귀하게 됐다. 청와대는 노 차관에 대해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노태강 문체부 2차관